

# 지난해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최저

200명...전년보다 21% 줄어

자치경찰위 데이터 분석 통한

시설 개선·교통안전 캠페인 성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31일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7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인 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255명)보다 55명(21.6%)이 줄어든 것으로 교통사고 통계 관리를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감소 인원 수는 전국 18개 시·도 중 1위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높은 고령화 비율로 최근 3년 동안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56%에 달하는 것에 착안해 교통 사망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 주민 보호구역 확대 사업,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 사업 등을 실시했다.

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안전 캠페인, 일반 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운영, 화물차 집중단속을 추진했으며 전남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마을 주민 보호구역 개선, 중앙분리대 설치, 역주행 방지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8358건으로 2021년(8732건)보다 374건(4.3%) 줄었고, 부상자는 1만2590명으로 2021년(1만3600명)보다 1010명(7.4%) 감소했다.

특히 65세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51명에서 110명으로 41명(27.1%)이나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승합차 사고가 9명에서 4명으로 55.6%, 농기계 사고가 14명에서 7명으로 50.0%,

화물차 사고가 76명에서 54명으로 28.9%, 승용차 사고가 108명에서 85명으로 21.3% 각각 줄어든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폭 감소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도경찰청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해 어린이·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교통사고 잦은 구간 집중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PM)-배달 오토바이-음주운전 등 집중단속, 노인 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100개소 이상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자체 등과 지방-치안행정을 연계한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관련 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 개선, 교육과 홍보, 주요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을 통해 계속해서 사망자가 감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체험하세요

4일 농업테마공원서

달집태우기 등 재현행사

전남도농업박물관은 4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영산호관광지내 농업테마공원에서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각종 세시풍속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농업박물관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대보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대대적인 정월대보름 행사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월 대보름은 예로부터 설에 맞먹는 큰 명절이었다. 대보름과 관련된 세시풍속이 1년 중 가장 많이 참가자들은 다양한 세시풍속놀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기원마당과 대동마당으로 이뤄진다. 기원마당에서는 달맞이와 소원지 달기, 액운을 떨치고 자신과 가족, 지역민의 평안과

풍년을 바라는 달집고사예 이어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된다.

대동마당에서는 전통무예 '기예무단'과 문화예술 공연단체인 극단 '갯달'의 전통놀이 공연이 열린 뒤 공연단과 참석자가 함께 어우러져 대형 달집 주위를 돌며 소원을 비는 지신밟기 놀이가 열린다.

이어 참가자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올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줄다리기를 시합을 벌이고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건강술래 놀이를 통해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

참가자들에게는 정월 대보름 세시 음식인 팥공, 호두 등 부럼과 오곡밥(복쌈)이 무료로 제공된다.

임영호 전남농업박물관장은 "세시풍속 재현을 통해 조상의 생활 모습과 지혜를 엿보고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에게는 체험의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여수 화양면 30여 어촌계 뭉쳐 가막만 복원 등 공동대응

어민 발전대책위원회 창립총회

여수시 화양면 30여 개의 어촌계들이 지난 27일 기후 위기 속 가막만 및 여주민 생태계 복원, 어민 소득 증진 및 어촌 삶의 질 향상 공동 대응,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공동 추진 등을 위해 '화양 어민 발전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인접해 있는 어촌들이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공모사업에 개별 대응에 나서면서 이웃 어촌과의 갈등·마찰이 잦아지고, 시설 과잉 설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수시 화양면 어촌계들의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어촌계들은 개별 어촌들의 미흡한 기반 시설, 경쟁력 등과 함께 생산성, 인접성, 중심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화양면 어촌 발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여수시, 전남도 등에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어촌계 자체적으로는 어촌계 가



입 조건 정비를 통해 정부-지자체의 귀어-귀촌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를 주도한 이희한 여수안포어촌계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고갈돼 가는 어족 자원, 너무도 미흡한 기반·복지시설, 어민 소득 정체 또는

감소 등 화양면 어촌들이 모두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는 개별 어촌이 나서 극복할 수 없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어촌이 직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농촌융복합 사업 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사업비 14억원 최다 확보

'2022년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성과' 평가에서 전남농촌융복합센터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업무를 전담하는 11개 시·도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인증평가와 사후관리, 현장코칭, 안테나숍과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성과 등 8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가 40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등의 안테나숍을 통한 매출액이 2021년(44억원)

보다 23억원 증가한 67억원을 달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514건), 센터사업비 집행률 등에서도 1순위 평가를 받고,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담양한과(명진식품)가 우수상을 수상한 점도 한몫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촌융복합사업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전남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생산·가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사업 성공모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립도서관, 4개 분야 '올해의 책' 선정

문학·비문학·청소년·어린이 분야 독서왕 선별 등 책 읽는 문화 확산

전남도립도서관이 '2023년 올해의 책'으로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마지막 레벨 업' 등 4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책을 통해 '작가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민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하반기엔 '독서왕 선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의 책 선정은 지역 작가와 교수, 사서교사 등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했다. 문학, 비문학, 청소년, 어린이, 4개 분야로 나눠 각 1권씩 선정했다.

문학 분야는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선정했다.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주인공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따뜻하게 풀어낸 소설이다. 비문학 분야에선 기후 변화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과학서 교수의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청소년 분야에서는 김미은 작가의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이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어린이 분야는 운영주 작가의 '마지막 레벨 업'이 선정됐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게임 속 세계에 사는 주인공의 모험과 사랑을 흥미롭게 표현해 심사위원과 도민의 공감대를 얻었다.

박용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올해의 책을 통해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보건·복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출발

작은영화관 운영 등 서비스 확대

주 4회로 늘려 210개 마을 운행

전남도가 1일부터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섬과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보건·복지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의료 등에 대한 서비스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인기가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제공했던 14종의 서비스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한

다. 새롭게 추가해 운영하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스트레스 검사 ▲머리 염색 ▲산소포화도 검사 ▲반려동물 키우기 체험활동 ▲작은 영화관 운영 ▲푸드트럭 운영 등이다.

또 도서 및 산간 벽지마을에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도립극단, 전남문화재단, 시·군 예술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공연 행사도 월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의 운행 거리도 대폭 늘어난다. 주 3회 운행에서 주 4회로 확대해 총 210개 마을을 운행한다는 목표다. 지난해에는

124개 마을에서 운행했다. 또 7-8월 농번기에는 사·군이나 읍면동별 마을 행사, 장날 등 전남행복버스 운행 요청이 있으면 추가 운행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도민의 전남행복버스 이용 만족도가 94.5%에 달한다"며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주민 의견을 받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보완하는 등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코로나19 선제적 현장 대응으로 총 44회 1만2700건의 코로나 선별검사를 하고 총 124개 마을을 방문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했으며 실제 이용객은 5225명에 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